

주장자파라...

청담 스님의 '코드'



조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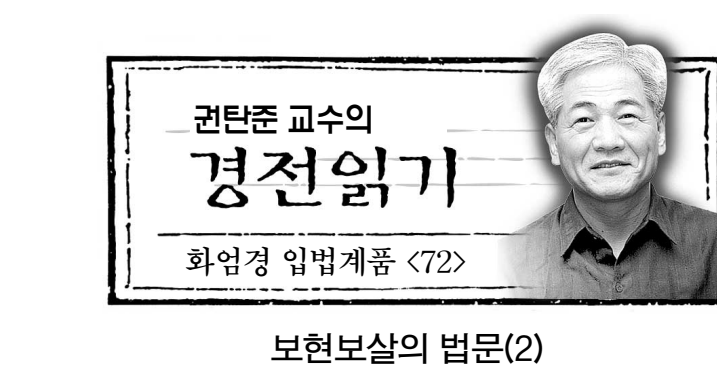
청담 스님(1902~1971): 경남 진주 주. 23세 때 고성 육천사에서 득도. 대원불교전통강원 수료. 유점사·상원사 등서 정진. 1955년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이후 종단 주요직 역임.

보리도량의 여래 앞 보배연꽃 사자좌에 있는 보현보살이 시방의 일체세계에 두루 널리 미치는 신심(信心)으로 불가사의한 자재신통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난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시방세계의 보현보살을 인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나긴 구도여행 끝에 비로자나여래의 사자좌 앞에서 보현보살의 광대무변한 중생구제의 자비활동을 보고 나서 허겁지겁 광대한 열 가지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영원한 법계의 부처님과 보현의 영원한 행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법계에 들어감(入法界)'을 현실세계에서 실증(實證)하게 하는 것은 선재동자가 오직 현실에서 보현보살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보리도량에서 여래의 앞에 있는 보배연꽃 사자좌에 앉아 있는 보현보살을 본다는 것은, 보현보살의 경계가 부처님의 경계와 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현보살이 도달한 지위가 부처님의 지위와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현보살은 본래 형체가 없는 법신인 여래를 보살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구체화(具體化)하여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을 보는 것은 바로 여래를 보는 것이 된다.

시방의 일체세계에서 자비심을 근본으로 해서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두루 실천하고 있는 보현보살의 모습은 그대로 부처님의 활동모습이며, 입법계묘의 첫머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자비로운 중생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래의 사자신신 삼매(師子頻申三昧)의 구체적인 모습인



보현행 실증 하였기에 입법도량 가능 어긋남 없이 보리심 냄으로써 법신 성취

이처럼 보현보살의 도량은 여래의 앞에 있는 것이기에, 무공무진한 보현의 열의 바다(願海)라고 하는 것도 오직 여래의 덕(德)의 전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기나긴 구도여행의 끝에 보현보살이 행하신 바를 실증하였기 때문에 선재동자는 마침내 보현행의 도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보현행의 도량은 이제 선재동자가 머물고 있는 도량이 된 것이다. 선재동자가 이제 보현보살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시방세계의 부처님 처소에 있는 무량한 보현보살이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격려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현보살은 선재동자에게 시방세계에 널리 있는 자신의 신심(信心)에서 나타나는 무애자재한 신통조화를 보게 하고, 일체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여러 삼매를 얻게 한 후에, 이러한 경계를 성취할 수 있

다...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을 보라. 이 육신은 그치없는 겁의 바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한량없는 천억 나유타 겁에도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렵다... 선남자여,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세계에 날 것이요,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몸을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나의 청정한 몸을 가운데 날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보현보살의 자재한 신통력과 청정한 법신이 무량겁동안 보살행을 행하며, 언제나 부처님의 교법을 순종하여 가르침에 어긋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보리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구호하고자 한 인연으로 성취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도(佛道)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실천해야 할 만고불변의 공도(供道)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자신의 청정한 육신을 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인격체로서 이 큰 보리심을 보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법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보살행과 같은 구체적인 인격의 활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몸을 보니 보현보살이 낯날 세계바다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몸구름을 나타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하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아득다라삼삼보리로 향하게 하며, 선재동자는 또 자기의 몸이 보현보살의 몸 속에 있는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감대 불교문화학부

네터즌 교리문답

복덕과 공덕의 차이는?

문 경전을 보다 보면 복덕이나 공덕이란 말이 자주 보입니다. 복덕은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D '조계대운')

답1: 한국에서 복이란 말은 공덕과 달리 기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덕과 공덕은 똑같은 의미의 다른 번역이다. 산스크리트 구나(Guna)를 번역한 말로, 연기와 윤회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행위의 하나이다. 종류는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게 하는 월천공덕(越天功德), 가난한 사람에게 옷과 음식을 주는 구난공덕(救難功德),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활인공덕(活人功德) 등 매우 많으며 선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베푸는 모든 행위와 마음 씀씀이가 모두 공덕이 된다. 그러나 가장 큰 공덕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 (D '우루공덕')

답2: 복덕은 욕심 많은 부자가 피눈물나게 노력하였을 때 잠깐 찾아와 수고했다고 한 마디 하고는 헛하니 사라지는 것이고, 공덕은 욕심 없는 가난한 자가 가난까지 벗어났을 때 스스로 찾아와 가난도 모르는 명칭이 평생을 섬기는 것이다. (D '중중')

불타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47 교외별전(敎外別傳) - 7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진상은 불이(不二)라는 개념에 담겨 표명된다. 삼라만상이 다 독자적인 개별자로 보이지만 기실은 그렇지만은 않고 불가분의 관계고유하고 독자적인 것이 뭐가 있나? 모두들 가우똥하다. 한 학생이 대답하였다.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다면데, 내가 대답하였다. 지문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지문이라는 현상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문도 내게 고유하고 독자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요즘 방송되는 한 공익광고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자동차 정지선을 지키자는 캠페인인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혼자만 산다면 정지선이라는 것이 필요 없으리라는 내용이다. 그렇다.

**“개체이면서 개별자 아니다”
언어문자로 드러내기 불가능**

혼자만 존재한다면 정지선과 차선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렇다. 그러나 불교에서 모든 것이 연기적 존재라고 할 때에는 고유한 독자적 개체성을 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존재 양상을 의미한다. 무아(無我), 즉 고유하고 독자적인 개체성을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라는 것이 개체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한다고 할 수 없다. 세상의 삼라만상은 다 연연한 개체로 존재한다. 다만, 모든 개체는 개체로 보일 뿐이고 기실은 그 존재 전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얘기이다. 강의시간에 무아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나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게 곰곰 생각해보면 다 남에게서 받은 것이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이 몸부터 그렇고 지식과 사고방식도, 취향도 따지고 보면 내게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지식도 밖으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답은 26면

상식퍼즐

가로

1. 불도를 함께 수행하는 벗 5. 절대적인 믿음을 바쳐 의지할 곳으로 삼을 7. 석가모니의 어머니 8. <유마경>에 등장하는 거사, 유마 9.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저서 11. 저승의 입구에 있다는 거울 13. 부정하고 율란한 것을 금하는 계율 14. 경기장에 쳐놓는 성스러운 불, 율림피 00 15. 깊은 밤 16.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현 19.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입시 000 21. 토기와 거북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판소리 23. 세조가 상원사에 머물 때 만났던 동자 24. 속이나 광장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여는 책 26. 의식을 맡아 집행할 27. 누비의 한자어.

세로

1. 음식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 밑에 받치는 것 2.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줄인 말 3. 사람이 살지 않는 섬 4. 부처님의 교훈을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경전 5.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 지은 시 6. 의로운 지사, 00 윤봉길 10.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 12. 대학생 MT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의 관광지 13. 불교도 낮처럼 환한 것을 일컫는 말 17.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으로 부처사의 이곳 유명 18. 오래된 궁궐 20. 불이(不二)의 이치를 설파한 법문 21. 아상(阿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000 22. 합천 해인사에 있는 산 23. 시나 문장을 모아 엮은 책 25. 저녁때의 햇빛.